조사연구(2024. 2) 25권 1호: 1−22
DOI http://dx.doi.org/10.20997/SR.25.1.1

연구논문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삼성꿈장학재단 대학희망장학사업 장학생을 중심으로

이승엽* · 하재영**

이 연구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삼성꿈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자료 중 대학희망장학사업 2020~2022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3개년도에 모두 응답한 356명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패널회귀분석에서의 하우스만-테일러 도구변수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교수 진로상담과 직업인 만남은 진로개발역량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개발 프로그램, 진로멘토링, 직업체험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활동 참여와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에 대해 다른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진로개발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저소득층 대학생, 진로활동 참여, 진로개발역량, 하우스만 테일러 도구변수 모형

* 이 연구는 삼성꿈장학재단 「2023년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논문 공모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wayout@snu.ac.kr), 제1저자.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chal0060@snu.ac.kr), 교신저자.

Ⅰ. 서론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기다(박가열 2009).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진로개발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 및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임천순·양병무 200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은 단기적으로는 졸업 후 직업세계로의 이행, 장기적으로는 개인에게 의미있는 진로성공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정지은·정철영 2017). 진로개발역량은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응하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김현순 2018; 임효신·정철영 2015), 자기이해와 직업세계 이해, 진로탐색, 설계 및 관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임효신·정철영 2015). 진로개발역량은 삶에서 진로와 관련한 여러 상황에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김현순 2018), 진로교육법에서도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을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으로 설정한 만큼 국가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초(超)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서 진로개발역량은 대학생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볼 수 있다(권현지 외 2023).

진로개발역량 함양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더욱 필요하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우, 일반 대학생들과 달리 학업성취나 진로준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이지혜·황매향 2017), 대학생 시기 동안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대학생은 대학생 시기 중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대학생 대상 진로개발역량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개인의 경험에 대한 접근보다는 변인 중

심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대학생 진로 관련 연구는 인지·정서·행동적 특성 변인이나 환경적 특성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유희영·오윤정 2019), 해당 변인과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김성앙 2021; 방윤희·안윤정 2019; 성희진·나승일 2012)가 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사회에서 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는 대학생의 진로 경험 증진을 위한 사업(예: 진로탐색학점제 지원사업, 서울희망대학 진로 장학금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의 개인 경험에 초점에 맞춘 개인 중심적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론적 모형에 근거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동안의 국내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연구는 이론적 모형에 근거하기보다는 개별 개념 간 관계를 검증하는 데 그쳤고, 일부 연구는 Lent & Brown의 사회인지진로이론을 활용하였으나(이병식 외 2013), 대상에 특화된 연구보다는 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을 대상에 적용하는 데 그쳤다. 진로개발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특정 이론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이론을 통합한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횡단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특정 시점에서의 설문조사와 면담을 통해 수집한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변인 간의 동적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진로개발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핵심인 개념이기 때문에, 종단적인 변화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관련 종단연구를 위해 삼성꿈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자료 중 대학희망장학사업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자기주도성, 새로운 지식 습득, 기술 개발 등의 특성이 진로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서현 2019; Ion 2023)를 근거로, 저소득층 대학생이 대학 과정에서 참여하는 진로활동이 진로개발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활동 참여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I-E-O 모형과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을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하였으며, 하우스만-테일러 도구변수 모형을 활용하여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까지 다소 제한적인 연구가 수행된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 특성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며(이지혜·채재은 2013),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를 의미한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2022). 위 정의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학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수급권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대학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이미 다른 출발선에 선다(이지혜·황매향 2017). 저소득층 대학생은 부모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대학진학 첫 세대(first-generation college students)인 경우가 많으며(김은경 2010), 진학하는 대학의 위세가 낮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변수용 2006).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은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 저소득층 대학생은 대학생활 중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큰 과제가 되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 과정에서 제한된 직업탐색과 학습경험,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부족한 지식과 연결된다(Ion 2023). 그리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용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부적응을 심화시키기도 한다(이지혜·채재은 2013). 해당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휴학이 길어지거나 어학연수·취업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낮은 임금을 받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저소득층으로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우광호 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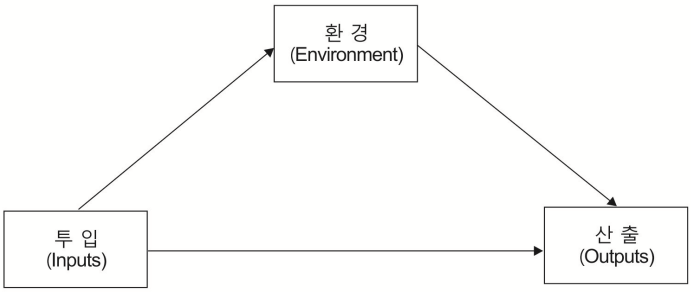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공공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장학재단에서 파란사다리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 4억 원(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대상(I 유형)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며(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 고용센터에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국민취업지원제도 n.d.).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5구간(당해 학기) 이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중 해외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해외 대학에서 약 4~5주간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꿈장학재단에서 대학희망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희망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장학금 및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멘토링 꿈장학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며, 멘토링 꿈장학사업의 장학생 중에서, 대학 신입생이 되는 경우 대학희망장학사업의 신규 장학생의 자격조건을 부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선발된 대학희망장학사업의 장학생들에게는 등록금, 학습보조비, 자기계발비 및 근로장학금 등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 외에도 리더십 프로그램, 동아리 자치활동, 봉사활동, 선후배 멘토링, 진로면담 및 취업지원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삼성꿈장학재단 2023). 이러한 사업들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더욱 주도적으로 진로활동에 참여하여 진로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 진로활동 참여와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

진로활동 참여와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는 I-E-O 모형과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I-E-O 모형은 대학에서 학생의 참여 과정에 따른 효과를 투입-환경-산출로 표현한 모형이다(조소영·조규락 2022). 해당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한 Astin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때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성별, 연령, 성적,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소득수준 등)을 투입 요소로 보고(Astin & Antonio 2012), 투입이 환경과 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류소형 2022). 그리고 환경은 대학생활 과정에서 학생이 겪는 경험 전반을 의미하며, 투입된 요소가 산출로 이어지는 데 있어 미래에 예상되는 산출을 개선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Astin & Antonio 2012). 그리고 산출은 대학생활을 통해 계발되는 재능을 의미하는데(Astin & Antonio 2012), 이는 즉, 다양한 경험을 한 후의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 성과를 뜻하며, 자기효능감, 만족도,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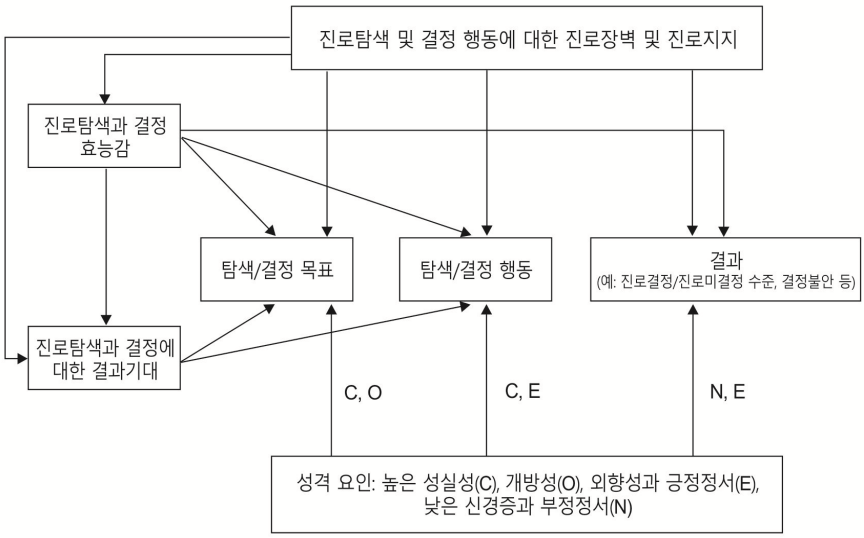
졸업 성적, 취업 등이 예시가 된다(류소형 2022). I-E-O 모형을 이 연구에 적용한다면 저소득층 대학생이 대학에 입학해(투입) 대학생활 중 진로활동에 참여하고(환경), 이는 진로개발역량 향상(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림 1> I-E-O 모형

출처: Astin, A.W. and A.L. Antonio. 2012. *Assessment for Excellence: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p. 20을 번역.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은 Lent & Brown의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기본 틀을 확장해 진로개발의 과정적 측면에 주목한 모형이다(이주미 2021). 사회인지진로이론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근거로 하여 개인의 진로흥미발달, 진로선택, 과업수행, 직무만족 등 진로 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다수의 모형을 제시해 왔다. 그 중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은 진로선택 모형을 수정한 것으로(Ireland & Lent 2018), 적응적 진로행동과 결과의 선행변인으로 진로와 관련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진로활동을 통제하는 과정이나 구조에 주목하였다(이주미 2021; Lent & Brown 2013). 구체적으로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에서는 진로탐색과 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같은 인지적 요인이 목표,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성격과 맥락 요인(진로장벽, 진로지지) 또한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림 2>를 이 연구의 맥락에 적용한다면, 저소득층 대학생은 경제적인 조건으로 인한 진로장벽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진로와 관련한 탐색/결정 행동이나 결과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진로 관련 경험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행동(진로활동 참여)은 결과(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진로탐색과 결정 행동에 대한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

출처: Lent, R.W. and S.D. Brown.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64를 번역.

이론적 모형 외에도 선행연구에서는 진로활동 참여와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연구로 이지혜·황매향(2017)은 S 장학재단의 리더육성장학사업에서 3학기 이상 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생 14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면담을 통해 진로준비 과정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진로준비 배경과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 ‘관리’, ‘확장’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조정과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진로포부를 조정하고 있었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 목표설정, 절약, 자기관리 등을 하고 있었으며, 확장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확장하기 위해 교수와의 면담,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직업인과의 만남 등 지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대학생 외에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주로 조사연구로 수행되었다. 성희진·나승일(2012)은 대학교 3학년과 4학년 389명을 대상으로 경력탐색

행동과 대학경력개발지원이 경력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중다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경력탐색행동의 하위요인인 자신에 대한 탐색과 직업에 대한 탐색, 대학경력개발지원의 하위요인인 취업준비지원은 경력개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대학경력개발지원의 하위요인인 현장경험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세경·강정애(2016)는 한국장학재단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에 참여했던 멘티 중 대졸자 175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참여가 역량개선, 역량개선이 취업 및 멘토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분석 결과, 멘티의 멘토링 참여율이 높을수록 역량개선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역량개선은 취업과 멘토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역량개선은 멘토링 참여율과 취업, 멘토링 참여율과 멘토링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민욱 외(2020)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2019)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 35,828명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및 서비스 경험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그 결과, 서비스 중 학과(전공)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현직자 진로·직업 멘토링, 취업준비 프로그램(자기소개서, 면접 등), 현장실습 및 인턴 프로그램, 진로취업 설명회, 박람회, 잡(job) 페스티벌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로·취업 교과목(진로지도 및 상담, 취업지도 및 지원)과 서비스 중 진로취업센터(경력개발센터 등)에서 상담, 진로 관련 검사, 학생경력개발 시스템(웹사이트) 활용, 취업 관련 동아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조사연구 이외에도 실험연구 및 질적 연구를 통해 진로활동참여와 진로개발역량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미영(2022)은 진로멘토링에 참여한 대학생 17명을 실험집단,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 16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여 진로멘토링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진로개발역량 점수는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권현지 외(2023)는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형성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우수한 진로개발역량을 지닌 대학생 5명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면담을 활용해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의 결과, 우수한 진로개발역량을 지닌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형성 과정은 조사기(調査期)와 탐험기(探險期)로 구분되었고, 대학생들은 조사기에서 주체적으로 진로정보 탐색, 타인과 대화하며 진로와 관련한 단서를 획득하는 행동을 보였다.

한편 진로활동 참여와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에 관한 종단연구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손원빈·조성근(2017)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1 패널 4~6차년도 자료(고1~고3, 총 2,056명)를 활용하여 직업체험활동이 포함된 체험활동 참여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종단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체험활동 참여시간이 많았던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원정은·정혜원(2019)은 서울교육종단연구 초등패널 중 4~8차년도 자료(중1~고2, 총 2,433명)를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활동은 모든 시점에서 유의한 동시효과를 보였고, 중2 시점과 중3 시점의 진로활동 참여는 중3과 고1 시점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지연효과를 보였다.

이론과 선행연구를 종합했을 때,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활동 참여는 I-E-O 모형의 환경,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의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I-E-O 모형의 산출이자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의 결과로 볼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횡단자료만을 활용해 효과를 검증했다는 한계가 있었고,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진로활동의 유형 중 진로개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변인도 존재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활동을 개별로 구분하여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대상

이 연구에서는 삼성꿈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삼성꿈장학재단 장학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삼성꿈장학재단에 의하여 수집되었으며, 장학생의 자기응답식 설문조사에 기반한 응답값으로 측정되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총 4가지의 장학사업(멘토링 꿈장학사업, 리더육성 장학사업,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및 글로벌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학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재단의 장학사업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및 조사도구를 자체 개발하여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자료로 공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리더육성 장학사업의 일환인 '대학희망장학'에 참여하는 장학생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삼성꿈장학재단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자료의 대학희망장학사업 장학생 자료 중, 2020년, 2021년 및 2022년 3개 연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자료는 매년 장학생 고유 ID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장학생 고유 ID를 활용하여 2020년, 2021년 및 2022년에 각각 모두 응답한 사람을 추출하고 이를 종단자료로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졸업하거나 (장학금)지원중단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총 356명의 3차년도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분석변인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및 문항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우선, 종속변수는 진로개발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의 구성요인은 주로 자기이해, 진로에 대한 직업 지식, 진로계획 및 관리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고성민·박윤희 2023; 이민욱·노민정 2022; 이승순 외 2018; 임효신·정철영 2015).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개발역량의 구성요인을 제시하되, 진로계획과 진로결정성은 차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별개의 구성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총 4가지 요인(자기이해, 진로의식, 진로계획 및 진로결정성)의 14문항을 사용하여 진로개발역량을 측정하였다. 다만, 설문문항에서 역코딩된 4개 문항을 바로잡은 후, 1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는 진로활동 참여로, 진로교육법상 진로교육 개념에 따르면 진로활동은 학생의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활동 참여는 진로개발 프로그램, 진로멘토링, 교수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직업인 만남 참여 여부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문항 중 '지난 1년 동안 교내에서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 '진로관련 멘토링 프로그램'. '(학과 교수와) 진로상담', '직업체험 교육 혹은 견학',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각 응답값을 활용하였다. 그 외,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 연령, 학년, 성별 등의 학생특성(성희진·나승일 2012; 정지은 2017)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황(Dillard 1976; Duncan et al. 1988)으로 저소득층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 차상위계층 혹은 기타 저소득층인 경우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측정변수

구분			측정내용	응답값
종속변인	진로개발역량	자기이해	1)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2) 나는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3) 나는 아직 나 자신의 적성 및 소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역코딩).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조금 그렇지 않다(3) 조금 그렇다(4) 그렇다(5) 매우 그렇다(6)
		진로의식	1) 나는 미래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역코딩) 2)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역코딩) 3)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역코딩) 4) 돈이 충분히 많아서 일을 할 필요가 없으면 좋겠다.(역코딩)	
		진로계획	1)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생각해본다. 2)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자주 생각한다. 3)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현재 필요한 일들을 하나씩 찾아 실천하고 있다.	
		진로결정성	1)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결정했다. 2)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꿈꾸던 직업과 일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것 같다. 3) 나는 어떤 직장(회사)에서 일할 것인지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정하였다. 4) 나는 직장에 들어간 이후 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자기 이해(3문항), 진로의식(4문항), 진로계획(3문항), 진로결정성(4문항), 총 14문항 평균값 산출하여 활용.	
독립변인	진로개발 프로그램		지난 1년 동안 교내에서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1=있다 0=없다
	진로 멘토링		지난 1년 동안 교내에서 '진로관련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1=있다 0=없다
	교수 진로상담		지난 1년 동안 교내에서 '(학과 교수와) 진로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1=있다 0=없다
	직업체험		지난 1년 동안 교내에서 '직업체험 교육 혹은 견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1=있다 0=없다
	직업인 만남		지난 1년 동안 교내에서 '관심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1=있다 0=없다
	연령		조사년도-출생연도+1	
	학년		연속형변수	
	성별※		0=여성, 1=남성	
	저소득층 유형※		0=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층, 1=기초생활수급자	

주: ※로 표시된 성별 및 저소득층 유형은 시간불변(time-invariant) 변수임; 저소득층 유형은 개념적으로는 시간가변(time-variant) 변수이나, 이 연구의 표본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3개 연도 간 저소득층 유형이 변화된 경우가 없으므로 시간불변 변수로 투입하였음.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활동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패널회귀분석방법으로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였는데,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chi^2 = 16.18,\ p < .05$). 그러나 고정효과모형은 시간불변(time-invariant) 독립변수의 계수 추정이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서, 이 연구처럼 시간불변 독립변수가 포함된 분석에서는 고정효과 분석을 단순히 적용하는 경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임현정 외 2015). 이러한 패널회귀분석 고정효과 모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불변(time-invariant)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통계적으로 엄밀히 추정하는 하우스만-테일러 도구변수(Hausman-Taylor instrumental variable model)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권세훈·한상범 2013). 하우스만-테일러 도구변수 모형은 모형 내의 설명변수들을 적절히 변형하여, 도구변수를 찾고 이를 통해 회귀계수를 효율적으로 추정해낸다. 하우스만-테일러 모형에서는 1차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후 1단계 고정효과분석을 통해 생성된 잔차를 종속변수로 하고 시간불변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2단계 분석을 추가로 시행한다. 2단계 분석시, 외생독립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도구변수를 통해 시간불변변수의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시간가변변수는 개체별 평균을 차감하여 편차를 산출 후 투입하면 오차항과의 상관관계가 없어지므로 효과적인 도구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투입하여 확률효과모형에 의한 회귀계수를 최종적으로 추정함으로써(민인식·최필선 2010), 시간불변변수의 회귀계수도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도구변수도 자동으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임현정 외 2015)는 강점이 있다. 이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y = \alpha + X_1\,\beta_1 + X_2\,\beta_2 + Z_{1i}\delta_1 + Z_{2i}\delta_2 + \mu_i + \epsilon$$

y : t 시점 i학생의 진로개발역량
X_1 : 시간가변 외생독립변수(진로활동참여)
X_2 : 시간가변 내생독립변수(연령, 학년)

Z_1 : 시간불변 외생독립변수(성별)

Z_2 : 시간불변 내생독립변수(저소득층 유형)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량

분석에 포함된 연속형 변인의 기술통계와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 진로개발역량의 2020년 평균은 4.97, 2021년 평균은 4.83, 2022년 평균은 4.88로 나타났다. 연령은 2020년 평균 20.04세, 2021년 평균은 21.04세, 2022년 평균은 22.04세로 나타났으며, 학년 평균은 2020년 1.9학년, 2021년 2.75학년, 2022년 3.52학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2020년 .864, 2021년 .820, 2022년 .767로 나타났다.

<표 2> 연속형 변인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n=356)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뢰도
진로개발역량	4.97	.64	2.86	6	.864	4.83	.70	3	6	.820	4.88	.69	2.57	6	.767
연령	20.04	1.20	18	24	-	21.04	1.20	19	25	-	22.04	1.20	20	26	-
학년	1.9	.83	1	4	-	2.75	.69	1	5	-	3.52	.58	2	6	-

이와 함께 범주형 변인의 빈도 및 비중을 시간가변변수와 시간불변변수를 구분하여 확인하였다(<표 3> 참조). 우선 시간가변변수인 진로활동참여 변수의 경우, 학년이 증가할수록 참여하는 학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58명(25.5%)이었으나, 2022년 143명(40.2%)으로 증가하였고, 진로멘토링도 2020년에 참여한 학생은 64명(28.2%)에서 2022년

119명(33.4%)으로 증가, 교수 진로상담에 참여한 학생도 2020년 기준 96명(42.3%)에서 2022년 165명(46.3%)으로 증가, 직업체험에 참여한 학생도 2020년 기준 19명(8.4%)에서 2022년 94명(26.4%)으로 증가, 직업인 만남에 참여한 학생도 2020년 기준 107명(47.1%)에서 2022년 238명(66.8%)으로 증가하는 등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학생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불변변수인 성별의 경우 남성은 103명(28.9%), 여성은 253명(71.1%)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 유형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13명(31.7%), 차상위계층 및 기타저소득층은 243명(68.3%)으로 나타났다.

<표 3> 범주형 변인의 기술통계(n=356)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진로개발 프로그램	참여	58	25.5	116	32.6	143	40.2
	미참여	169	74.5	240	67.4	213	59.8
진로멘토링	참여	64	28.2	125	35.1	119	33.4
	미참여	163	71.8	231	64.9	237	66.6
교수 진로상담	참여	96	42.3	166	46.6	165	46.3
	미참여	131	57.7	190	53.4	191	53.7
직업체험	참여	19	8.4	58	16.3	94	26.4
	미참여	208	91.6	298	83.7	262	73.6
직업인 만남	참여	107	47.1	181	50.8	238	66.8
	미참여	120	52.9	175	49.2	118	33.2

구분		2020년 기준(시간불변)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03	28.9
	여성	253	71.1
저소득층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113	31.7
	차상위계층 및 기타저소득층	243	68.3

주: 5개 진로활동 문항은 일부 결측치 발생으로 총 응답자 수가 356명이 아닌 경우 존재.

2.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효과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테일러 도구변수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표 4> 참조). 분석 결과, 교수 진로상담과 직업인 만남이 진로개발역량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수 진로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진로개발역량을 .071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Coef. = .071$, $p < .1$), 직업인 만남에 참여하는 경우, 진로개발역량을 .112만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oef. = .112$, $p < .1$). 하지만, 진로개발 프로그램, 진로멘토링, 직업체험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성별은 여성보다 남성인 경우 진로개발역량이 .144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Coef. = .144$, $p < .1$), 연령, 학년 및 저소득층 유형(기초생활수급자 여부)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분석결과

구분		*Coef.*	*s.d.*	*z*
진로개발 프로그램(*ref.* 미참여)	참여	.043	.039	1.120
진로멘토링(*ref.* 미참여)	참여	-.008	.038	-.200
교수 진로상담(*ref.* 미참여)	참여	.071	.038	1.850†
직업체험(*ref.* 미참여)	참여	.050	.048	1.060
직업인 만남(*ref.* 미참여)	참여	.112	.038	2.960**
연령		.017	.037	.440
학년		-.017	.046	-.360
성별(*ref.* 여성)	남성	.144	.079	1.830†
저소득층 유형 (*ref.* 차상위계층 및 기타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105	.600	-.170
상수(cons)		4.428	.697	6.350***
Wald statistics(χ^2)			27.27**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우스만-테일러 도구변수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교수 진로상담과 직업인 만남은 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이 대학생활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I-E-O 모형과 진로 관련 경험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행동이 진로 관련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진로자기관리 사회인지모형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또한, 교수와의 면담이나 직업인과의 만남 등 지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었다는 이지혜·황매향(2017)의 연구, 학과(전공)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현직자 진로·직업 멘토링이 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민욱 외(2020)의 연구, 우수한 진로개발역량을 지닌 대학생은 타인과 대화하며 진로와 관련한 단서를 획득한다는 권현지 외(202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였다. 이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개인별로 맞춤형 접근(예: 상담, 만남)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접근이 정서적 안정감 제공 측면에서 더욱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진로개발 프로그램, 진로멘토링, 직업체험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멘토링 참여가 역량개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세경·강정애(2016)의 연구, 현장실습 및 인턴 프로그램, 진로취업 설명회, 박람회, 잡(job) 페스티벌이 진로개발역량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민욱 외(2020)의 연구, 진로멘토링의 효과가 유의했다는 이미영(2022)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였다. 하지만 현장경험지원이 진로개발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성희진·나승일 2012)와 취업 관련 동아리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이민욱 외 2020)는 이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은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다르다(정철영 외 2023).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 방식에 따라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일회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운영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제언

이 연구는 대학생 진로 연구에서 비교적 제한적인 연구가 수행됐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와 결론을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패널데이터에 구축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의) 월 평균 소득, 가구 소득, 등록금 부담 등 저소득층 대학생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변인과 소속 대학의 소재지, 전공계열 등 대학 특성 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활동 참여와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에 대해 다른 대학생 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에 미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이 구분되었고, 일반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측면도 존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활동 참여와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모형을 설계한 후 저소득층 대학생 집단과 다른 대학생 집단 대상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특화된 진로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으로 저소득층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 수혜여부’에 따른 효과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장학금 수혜에 따른 효과를 확인한다면 저소득층 진로발달의 특성을 더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종단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패널회귀분석에서의 하우스만-테일러 도구변수 모형을 활용하여 진로활동 참여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검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론 및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관한 연구 모형을 설계하고, 종단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통해 진로활동 참여 유형과 진로개발역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잠재성장 모형을 통해 진로개발역량의 종단적 궤적을 확인하고, 관련 변인 간 구조적 관계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실천적 차원에서 현재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진로개발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결과, 교수 진로상담, 직업인 만남이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저소득층 대학생과 교수, 직업인 등 조력자 간의 개별적인 만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로개발 지원의 내용 및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로개발 프로그램, 진로멘토링, 직업체험은 진로개발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으로 해외 연수, 삼성꿈장학재단에서 선후배 멘토링, 진로면담 및 취업지원 워크숍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효과적인 진로개발 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공급자인 사업 담당자, 참여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성민·박윤희. 2023, “국내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역량개발학습연구 (구 한국 HRD 연구)≫ 18(3): 63-92.

국민취업지원제도. n.d.. 지원 내용.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Cn.do

권세훈·한상범. 2013. “시간불변 설명변수가 포함된 기업재무 패널 분석.” ≪산업경제연구≫ 26(4): 1635-1658.

권현지·엄성현·장환영. 2023. “대학생의 진로개발역량 형성 과정 연구.” ≪진로교육연구≫ 36(1): 1-20.

김경근·변수용. 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선택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

구≫ 16(4): 1-27.
김서현. 2019.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경험한 학습의 자기주도성.” ≪한국사회복지학≫ 71(2): 7-36.
김성앙. 2021. “대학생의 진로개발지원, 진로역량, 진로적응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8): 225-240.
김은경. 2010. “대학진학 첫 세대의 특성과 학습경험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6(2): 103-123.
김현순. 2018.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척도 개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 103-127.
류소형. 2022. “대학생성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민인식·최필선. 2010.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박가열. 2009.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방윤희·안윤정. 2019. “대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역량의 관계에서 계획된 우연기술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7): 147-161.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74호, 2022)
삼성꿈장학재단. 2023. “2023년 교육소외 아동청소년 종단연구 논문 공모 온라인 데이터 설명회 자료.” 삼성꿈장학재단.
성희진·나승일. 2012.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력개발역량과 경력탐색행동 및 대학경력개발지원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1): 83-108.
손원빈·조성근. 2017. “고등학생의 체험활동 참여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의 활용.” ≪청소년학연구≫ 24(9): 223-247.
우광호·안준기·황성수. 2010. “교육 및 부(富)의 세대간 이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19(3): 121-150.
원정은·정혜원. 2019.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동시 및 지연효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0(1): 5-37.
유희영·오윤정. 2019. “대학생의 진로 및 진로교육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네트워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7): 1023-1045.
이미영. 2022. “코로나19세대 대학생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멘토링 효과 연구.” ≪인문사회 21≫ 13(1): 2821-2836.
이민욱·노민정. 2022. “Group Mnet 기계학습을 통한 대학생 진로개발역량 관련 변수 탐색.” ≪진로교육연구≫ 35(3): 111-141.
이민욱·이가영·김정현. 2020. “대학생의 진로·취업 관련 교과목 및 서비스 경험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3): 79-107.
이병식·공희정·김혜림. 2013. “대학생의 진로역량개발에 대한 대학 특성의 영향 분석:

층위 간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1(4): 213-247.
이승순·이근매·송호준. 2018. “콜라주중심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장애대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22(4): 185-206.
이주미. 2021. “사회인지 진로자기관리모형에 기반한 청소년의 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설계역량 간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4(1): 73-96.
이지혜·채재은. 2013. “저소득층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정.” ≪평생학습사회≫ 9(1): 1-27.
이지혜·황매향. 2017.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 사례연구.” ≪평생학습사회≫ 13(3): 57-83.
임천순·양병무. 2006. “대학졸업생의 직업세계로의 이행과 취업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3), 1-25.
임현정·김양분·김난옥. 2015. “대학 입학전후 진로성숙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직업능력개발연구≫ 18(3): 27-56.
임효신·정철영. 2015. “중학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 개발.” ≪진로교육연구≫ 28(4): 107-137.
정지은·정철영. 2017. “대학생 진로역량 척도 개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9(3): 91-111.
정철영·정진철·서우석·이승엽·강민지·김기민. 2023.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이슈 탐색: 질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5(1): 103-132.
조소영·조규락. 2022. “잠재프로파일분석에 따른 대학생의 학습참여 유형과 예측요인 및 대학교육성과.” ≪교육공학연구≫ 38(2): 605-636.
진로교육법(법률 제18298호, 2022)
최세경·강정애. 2016. “멘토링을 통한 대학생 역량개선 및 진로진출 -한국장학재단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사례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6(2): 1-18.
한국장학재단. n.d.. 파란사다리. https://www.kosaf.go.kr/ko/mkinfo.do?pg=blueladder

Astin, A.W. and A.L. Antonio. 2012. *Assessment for Excellence: 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2nd ed.). Rowman & Littlefield.
Dillard, J.M. 1976.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and Self-concepts of Suburban and Urban Middle and Urban Lower Class Peradolescent Black Ma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 311-320.
Duncan, G., M. Hill, and S. Hoffman. 1988. “Welfare Dependance within and across

Generatioins.” *Science* 239: 467-471.

Ion, I.E. 2023. “Low-income, First-generation Students Experiences of Parent Support in Career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72(1): 215-233.

Ireland, G.W. and R.W. Lent. 2018.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Learning Experiences: A Test of the Career Self-management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6: 37-47.

Lent, R.W. and S.D. Brown. 2013.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ward a Unifying View of Adaptive Career Behavio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4): 557-568.

<접수 2023.12.15; 수정 2024.01.18; 게재확정 2024.02.07.>

Longitudinal Effects of Participation in Career Activities of Low-Income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Focusing on the Scholarship Students of Samsung Dream Scholarship Foundation's College Hope Scholarship Project

Seungyeop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Jaeyoung Ha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longitudinal effects of participation in career activities of low-income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o this end, among the longitudinal research data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and adolescents provided by the Samsung Dream Scholarship Foundation, data from 2020 to 2022 were used, and 356 people who responded in all three year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s an analysis method, the Hausman-Taylor instrumental variable model in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professors' career counseling and professional meetings significally increased career development compentency, but career development programs, career mentoring, vocational experien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he suggestions sugges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by additionally inputting a variable that affects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low-income college students. Seco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with other college student group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career activities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Third, it is necessary to conduct longitudinal studies using various methods 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low-income college stud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thods of career development support currently provided to low-income college students.

Key words: low-income college students, participation in career activitie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Hausman-Taylor instrumental variable model